

과실유발적 특성과



이 근 희

〈한양대학교수·경박·
한국공업경영학회장〉

1. 인간생활과 사회신뢰성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독립개별적인 폐쇄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공동협력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활과정에서 간과될 수 없는 기본사상은 바로 사회신뢰성일 것이다.

공공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은 상호신뢰에 의한 이해증진에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상호신뢰가 보험의 시작이며 끝이라면, 보험이 이룩해야할 사회신뢰란 단순한 편의만을 위한 것도 단순한 미래설계적인 것만도 아닌 공동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삶에 대한 보람을 얻게 하자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 공익성을 대전제로 보험이 그 본래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보다 사전관리에 힘쓰는 것이 신뢰증진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과제일 것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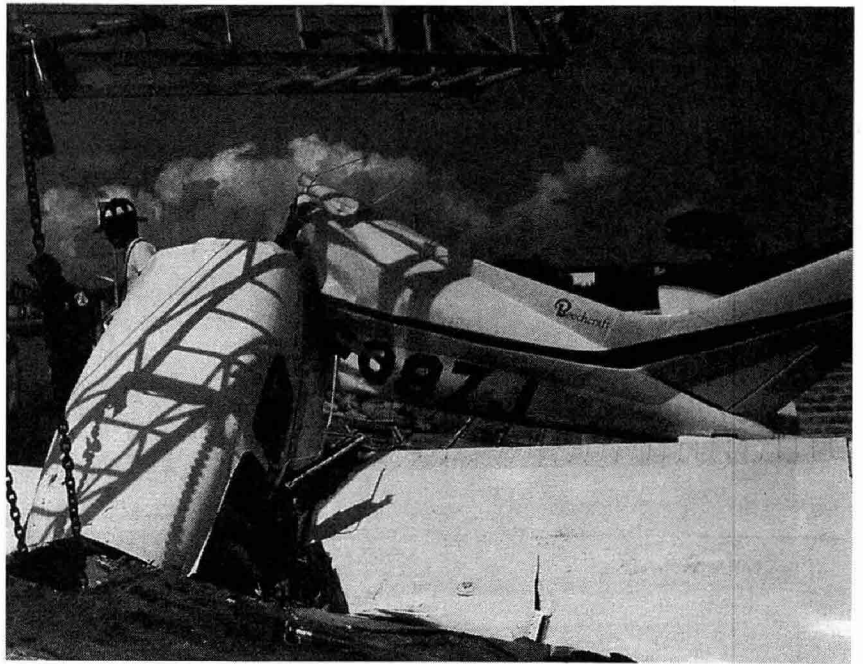
사회전체가 다양화되고 생활양상이 바뀌면서 차츰 기기, 기구, 기재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환경 도처에 많은 잠재위험을 지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자연재해나 자연사고가 감소하는 반면 인적재해나 인적 사고는 상대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사회신뢰성이란 측면에서 재조명해보는 것이 어찌면 보험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무너져가는 사회신뢰성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지름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인적결함과 물적결함을 상대적으로 비교분석해 본다면, 물적안전화가 인적결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인적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이 결함을 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판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 새로운 보험관이나 안전관으로 정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과실유발적 특성

사람은 천부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력과 자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칭송되고 있는 것이지만, 물적 측면은 인간특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지속성이라든가 신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그 특질로 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위해분석



경우에도 부정되거나 다른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생활에 쓰이는 것은 아무래도 물적 특질일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인간생활이 합리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로 인간생활과 연접되어 있는 물적 특질의 결함을 총칭해 과실유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사고들을 찾아 보면 그것은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으로 인한 반복사고라는데 바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부주의사고라는 것이 재해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덮어두더라도 모든 안전사고가 부주의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안전사고를 인간의 부주의에만 발생원인을 두는 인식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신뢰성이 무너지는 것인데도 이를 시정하고자하는 노력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어 새삼 사회신뢰성을 논의한다는 것이 씁스럽기까지 하다.

인간능력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많은 세월동안 인간은 물질이용을 이용하는 능력을 개발해 왔다. 반면에 이 개발과정에서 불행히도 물적 능력을 성능이나 미관 등에만 치우쳐 개발해온 나머지 인간과의 상관관계는 고려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후에 나타나는 결함을 시정하지 못하면서 모든 책임을 사람쪽에 전가시키는 결과만을 되풀이해 왔다.

물적능력과 인적능력이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되지 않는다면 인간생활의 편리성과 한계극복을 위해 개발되어온 물적능력은 인간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위험만을 안겨 줄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인간능력의 한계성이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과실유발적 특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과실이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말하는 것이며, 유발이란 피여낸다는 뜻인 바, 과실유발적 특성이란 사람쪽에 있는 어떤 잠재적 결함이 물적측면의 그 원천적인 결함으로 인해 유발된다는 것이다.

즉 과실유발이란 처음부터 물적결함을 말하는 것이 지 인적불합리를 지적하는 뜻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물적결함에 대해서는 일고도 없이 인적 결함 즉 부주의 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무래도 본말이 전도된 느낌인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에서 있을 수 있는 새로운 위상이란 물적결함을 구명함으로써 인간생활의 활동영역을 위해로 부터 보호하여 삶에 보람을 줄 수 있게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보험이 담당해야 할 기능일 것이다.

가령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도로에 대해서 아무런 안전대책을 수립함이 없이 그저 “사고 많이 나는 곳”이란 팻말만을 만들어 놓는 일만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다. 교통사고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사회정의에 대한 불신인 것이며, 보험의 입장에서는 손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손실을 반복해서 감수하는 뜻은 무엇



인지를 알 수가 없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란 일반적으로 커브길 또는 내리막길인 것이므로 이러한 도로에 속도저지대책을 마련한다면 교통사고는 자연 격감될 것이며, 사고가 줄어 이용자들의 사회신뢰성이 회복될 것이고, 보험지출에 있어서도 수익이 증가되어 그 증가분을 또 다른 복지증진에 씀으로써 보험의 존재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 이젠 보험도 모든 위해를 인적결함으로만 치부해 버리는 안일함은 버려야 할 것이다.

3. 위해분석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인지 모르지만 한번 발생한 사고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과학적 태도가 바로 위해분석기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적 기법이 제대로 쓰이지 못함으로써 보험의 공익성에 대해서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따라서 보험을 경원하는 풍토마저 생기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보험은 안전보장, 사고보장, 미래보장 등을 주기능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 이들 중에서 안전보장이 사전적이며 현재적인 것이라면, 뒤의 두가지는 사후적이며 미래적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적인 보장이 없는 보험이라면 그 누가 보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반성해 보지 않으면 아니된다.

결함이나 사고의 가능성은 도처에 산재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사고의 가능성이 없다면 보험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보험을 들어야 하는 어떤 결함이나 사고가 있다면, 또한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실제로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다면 이 두가지 모두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보험본래의 기능이다. 따라서 위해분석과 같은 합목적 기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원인으로 반복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힘쓰는 보험으로 탈바꿈을 해야 할 것이다.

위해분석이란 일단 발생된 결함이나 사고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분석해서, 그와 같은 잠재원인을 갖춘 또 다른 어떤 불합리를 찾아내 원천적으로 결함이나 사고의 발생을 봉쇄키 위한 것이다. 선행사고가 없다면 어떤 원인들이 모여서 사고로 될 것인지를 분간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각종 결함이나 사고는 다분히 우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번 발생한 결함이나 사고를 소중하게 다루어서 ① 사실적 원인 적출 ② 제거원인 탐색 ③ 항구적 대책수립 등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지는 것이 바로 위해분석이다. 분석기법에는 관리도방식(The Method of Control Chart) 특히 Pn관리도가 적용되어 위해분석의 예측기법을 한층 더 과학화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위해분석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험의 보람을 되찾고 보험의 새로운 국면을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보험의 사명이 사회적인 공익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새로운 관념의 보험은 추상적인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되기보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능을 전개하는 것이 기업으로서의 보험에 크게 공헌할 수가 있을 것이다.

기업이란 처음부터 그 설립목적이 영리성 추구에 있어 수익과 손익이 다같이 경영활동 속에 있는 것이므로 전략목표와 기술기법이 시대적인 배경에 적합하면서도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율배반적인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나 보험은 사회신뢰의 표본임을 재음미하고 그에 맞춰 운영해감으로써 실수요자의 보험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㉞